

어린이 책꽂이



▲준비됐지=중견작가 김옥씨의 장편동화다. 동생의 죽음으로 덮쳐든 불행과 죄책감, 사춘기 아이로서 눈뜨는 욕망과 상실, 부모의 억압적 기...



▲내 사랑스런 개코원숭이=스웨덴을 대표하는 작가 울프 닐손의 감동 동화. 마을의 집을 점령한 개코원숭이가 무리는 집안을 속대밭으로 만들어 버린다. 마을 사람들은 원숭이를 쫓아낼 방...



▲못말리는 꼬마 과학수사대=명탐정 꼬마천재들과 함께 풀어 보는 만화추리퀴즈. 똑똑한 대장 '제롬'과 깜찍한 톨보기 소녀 '바비', 말쑥꾸러기 '알도'와 호기심 많은 카페라 소년 '두돈', 침착하고 신중한 '패티' 등 다섯 명의 꼬마 친구들이 온 동네를 누비며 재미있는 과학수사대 놀이를 펼친다.



▲엄마는 응우옌 대왕의 딸='다문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준수 이야기를 동화로 그려냈다. 베트남 엄마와 한국의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준호는 친구들이 놀러도 베트남 영웅 응우옌 대왕의 38대 사촌인 엄마가 늘 자랑스럽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일깨우는 동화다.



▲수상이 된 한나=노르웨이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해 온 작가 토레 톨고겐의 첫번째 작품으로 10살 소녀가 노르웨이의 수상이 되어 나라를 꾸러간다는 내용. 수상이 되자마자 '사탕부', '웃음부'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어린이가 꿈꾸는 세상 이야기와들고 기성 사회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함께 전한다.



▲똥똥한 김치는 즐거워=작품 속 주인공 '나'의 몸무게는 95킬로그램, 그런 과제중 몸무게에 대해 비판적인 듯하면서도 음식에 관한 시와 재치 있는 문장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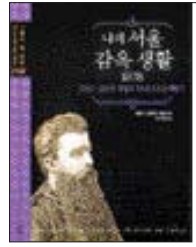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는 물새=물새는 습지를 좋아하는다. 물새들은 갯벌에서 게나 조개를 잡아먹고 강에서 물고기도 잡아먹는다. 책에는 갯벌, 강, 늪, 논 같은 습지에 날아드는 물새 26종의 세밀화 100여 점이 담겼다. 그림책처럼 보는 세밀화 도감 '내가 좋아하는 시리즈' 가운데 '물새'권.

▲난 선생님 아니야=이해영 시인의 자연과 사물을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 내고 있는 동시 모음집이다. 표제작 '난 선생님 아니야'를 비롯 50편의 작품을 담았다.

푸른 눈에 비친 130년 전 조선의 감옥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

펠릭스 클레르 리델 지음



130년 전 조선 말기 감옥의 모습은 어땠을까. 푸른 눈의 이방인에게 이런 풍경이 또 어떻게 비춰졌을까.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은 프랑스 선교사인 펠릭스 클레르 리델(1830~1884년)이 1878년 1월 말부터 6월 초까지 5개월 동안 서울에서 체험한 감옥 생활을 담은 일종의 회고록이다.

그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중국으로 피신하여 11년이 지난 뒤 선교활동을 하러 다시 조선에 왔다. 그는 당시의 감옥을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의 상(像)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당시의 감옥을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의 상(像)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식수를 제외한 유일한 물은 감옥 중앙에 있는...



푸른 눈 이방인에게 비친 조선 말기 감옥의 모습은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것'이었다. 낙안읍성 동헌. (광주일보 자료사진)

(獄守)들이 그에게 한 말은 "이것이 이곳의 관례이고 방손님을 처음 받으면 손님의 발을 이 거꾸 안에 넣어 놓게 한다"였다

그는 신입 죄수의 입방 신고식부터 죄복과 차 등대우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조선 감옥의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그는 당시의 감옥을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의 상(像)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식수를 제외한 유일한 물은 감옥 중앙에 있는...

용머리에 고여 있는 물, 하지만 이 물을 사용하... 더위와 추위, 환기가 안 되는 비좁은 공간, 열악한 식단으로 건강을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보통 수감자들은 독, 채무 죄수, 신도들이지만 가끔 포졸의 계약으로 들어온 무고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동반자가 된 수감자들의 군상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영화 기자가 본 '한국 사회'

'대한민국 표류기'

허지웅 지음



영화 잡지 '프리미어'의 허지웅 기자는 영화 뿐 아니라 세상을 돌아가는 일에 대한 글도 많이 쓴다.

방문자 수가 수백만에 이르는 블로그(ozzyz.egloos.com) 운영자이기도 한 그의 글은 관점이 뚜렷하고 직설적이다. '전공'인 영화 관련 이야기를 쓸 때도 그렇지만 '시사' 관련 글을 쓸 때는 가차 없다.

올해 서른을 맞은 그가 그간 쓴 글을 묶어 '대한민국 표류기'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주목적인 영화와 개인사,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담긴 책이다.

1부 '작은 사람들의 나라'는 개인적인 이야기(어떤 글은 너무 솔직해 보인다)를 통해 대한민국 이집트의 초상을 알차게 그려냈고, 2부 '큰 사람들의 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요즘 모습을 신랄하게, 하지만 애정을 갖고 적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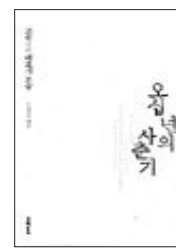
'하늘을 나는 섬의 나라'는 저자의 보편인 영화에 관한 이야기다. '괴수스캔들', '추격자', '다크 나이트' 등 화제작들에 대한 그의 시각이 흥미롭다. 일정 정도 '코드'가 맞는 사람 한 번 읽으면 놓기 어려운 책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은의 대표 시집 한데 모아

'오십년의 사춘기'

김형수 엮음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형수씨는 칠수를 넘겨서도 여전히 들끓는 열정을 쏟아내는 고은(76) 시인에 대해 전대미문의 풀밭사태이자, 현재진행형 사춘기라고 표현했다. 김씨가 이 '들끓는 사춘기' 고은의 대표 시 66편을 모아 시집 '오십년의 사춘기' 한권을 묶었다.

시인의 첫 시집 '피안감성'(1960)부터 지난해에 출간된 등단 50주년 기념 시집 '허공'에 이르는 고은 시 오십년 정수만을 모았다.

초·중·고·대 순으로 제1부 '집을 버리다'편, 2부 '외치다'편, 3부 '다시 길을 가다'편으로 나누고 4부는 '많은 사람들(만인보·萬人觀)'편으로 구성했다.

'허공'의 특이 지어지던 시인의 초기 시에는 생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면 중기라고 할 수 있는 1970~1990년대 시에는 빠르른 현실 인식의 반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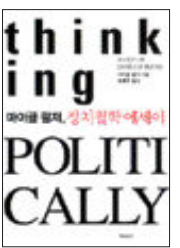
중기 시 가운데에는 2002년 김영사에서 출간한 고은 전집에 선 빠졌던 '벽시'도 수록됐다. 이 작품은 1980년 '실천문학' 창간호에 '무당'이라는 가명으로 발표된 시다. (문학동네·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자 알저

'정치철학 에세이'

데이비드 밀러 엮음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적 연대를 주장하는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알저 교수의 주요 저술을 모은 책 '정치철학 에세이'(원제 Thinking Politically : Essays in Political Theory) 이 나왔다.

알저 교수는 베트남전 이후 미국 반전 운동을 이끈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자유주의, 시민 사회 등에 관한 독창적인 의견을 펴려해 왔다.

그간 저널, 책 등을 통해 저자가 발표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별해서 편집했다. '철학과 정치' '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국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인도적 책임과 인권' '정치 도덕' 등 6가지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철학자들의 정치참여를 주문하고, 시민 사회의 정치적 참여를 긍정하면서도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또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집단학살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인도적 개입을 지지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8103
(두일동 무도도서관사거리 뉴힐역앞번 2층)
건물, 땅, 수완지구, 분양권, 임대전, 노블메디칼센터 임대분양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노블메디칼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분양권 임대전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추천 물건, 토지 매매, 토지 매매, 토지 매매, 토지 매매

명성공인중개사
016-611-3424, 011-625-0510
수완지구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점
1층 330㎡ 분할가능

다우공인중개사
☎523-8114,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시가리)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대360㎡/건841㎡(지상4층)/12m도로변 코너/용5억6천만/보2억3천월800만원/매가12억7천만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3-1140, 0210-002-2532
(용봉지구 신봉로, 대인동 소재)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